

# ‘사람 잡은 한파’ 피해도 가지가지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가 몰아치면서 노인들이 잇따라 동사하고, 양식장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이번 한파로 광주는 물론, 상대적으로 포근한 날씨를 보였던 전남 동부지역에서까지 수도관 동파 사고가 이어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 보성·신안에서 노인 2명 동사 잇따라

## 양식장 물고기 폐사·수도관 동파 속출

◇전남 노인 2명 숨져=17일 오전 11시15분께 심모(여·77)씨가 보성군 복내면 장천리 자신의 집 앞마당에 쓰러져 숨져있는 것을 이웃 주민(42)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웃 주민은 경찰에서 “심씨의 아들로부터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전화를 받고 찾아가 보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심씨는 거동과

말이 불편한 남편(82)과 단둘이 생활해 왔다.

경찰은 숨진 심씨의 옆에 빨래 더미가 함께 놓여있었던 점으로 미뤄 평소 고혈압 등 지병을 앓던 심씨가 추운 날씨를 견디지 못하고 동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16일 오후 2시께에는 임

모(83)씨가 신안군 흑산면 거거도 자신의 집 인근 논로에 쓰러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임씨는 이날 오전 10시에 집에서 600m 가량 떨어진 방목장에 염소 먹이를 주기 위해 집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령인 임씨가 눈이 내리는 길을 걸던 중 정신을 잃고 쓰러져 숨진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여수 양식장 물고기 400여만마리 집단 폐사=수도시설 ‘공공’=여수에서는 연일 계속된 혹한으로 인해 해수 온도가 크게 떨어지면서 양식장에

서 키우던 물고기가 집단 동사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이날 돌산을 군내리와 남면 화태도, 화정면 월호도 등 여수 섬지역 바다 가두리 양식장에서 키우는 참돔과 감성돔 등 물고기 400여만마리가 집단 폐사했다.

시는 여수의 양식장 대부분이 섬지역인 탓에 이날 피해실태 파악 작업에 차질을 빚었다는 점에서 양식장 피해 규모는 이 보다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날 여수를 비롯한 전남 동부지역에서도 수도시설이 얼어붙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날 여수, 순천, 광양에서는 전날

밤부터 이틀간 수도시설 동파가 26건 접수됐다.

여수의 경우 신덕동 신덕마을의 수도 시설이 파손돼 주민 50여명이 이틀간 물을 사용하지 못했고, 여수 연동동 GS무료급식소도 수도가 동파돼 소방자가 긴급 출동해 식수를 공급했다.

◇광주 수도관 100여곳 파손=광주에서는 수도계량기와 수도관 동파 사고가 속출했다. 광주는 영하 10도 이하의 한파가 몰아친 16일 밤부터 17일 오후 8시까지 총 97건의 수도계량기 동파 신고가 접수됐다.

또 이날 서구 화정동 모 아파트에서는 4층 수도관이 동파되면서 아파트 외벽 30m 구간에 날카로운 대형 고드름이 만들어졌다. 119구조대는 이날 굴절사다리차를 동원해 2시간여 동안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얼음 덩어리를 모두 제거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나원침 (8223) 김장두



## 전자발찌 채우나 마나

### 30대 성범죄자 여중생 4명 5차례 성추행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를 착용한 30대 성범죄자가 등·하굣길 여중생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일삼는 것으로 드러나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남성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학교 주변을 누비며 범행을 저질러 성범죄 재발 방지대책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여중생 성추행 및 숙우 절도=광주남부경찰은 17일 등·하교하는 여중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김모(33·광주시 남구 월산동)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9년 10월 초순 오전 7시30분께 광주시 남구 모 중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A(15)양의 가슴을 만지고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4명의 여중생을 총 5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컴퓨터 수리업자인 김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6시30분께 광주시 북구 한 가정집에 출장을 갔다가 B(17)양의 숙우 1개를 몰래 훔쳐 나온 혐의도 받고 있다.

◇‘무용지물’ 전자발찌=김씨는 지난 2006년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여성을 성추행하는 등 성범죄 전과 2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김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복역하다가 지난 2009년 8월 ‘전자발찌 착용’을 전제로 가석방됐다.

그러나 김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했던 기간인 지난 2009년 8월 말부터 지난 2010년 2월 사이에만 총 3건의 성추행을 벌여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해 주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전자발찌 제도의 효과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광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위치추적 등을 통해 전자발찌 착용자를 24시간 감시하고 있으며, 매달 4~8차례 면담을 실시하고 있다”며 “전자발찌 착용자 가운데 일부에만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지’ 등의 특별 준수사항이 주어지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전자발찌 제도 강화 필요=전문가들은 김씨처럼 전자발찌 착용자가 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감시와 함께 모든 전자발찌 착용자가 학교 주변에 거주하거나 일정시간 이상 머무르는 것을 금지하도록 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나이가 어린 학생들의 경우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범죄에 취약해 언제든지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법원이나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일부’ 전자발찌 착용자만 학교 인근 접근을 막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는 재발 가능성이 높은 범죄 중 하나”라며 “전자발찌 착용과 동시에 학교 주변에 얼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도시락 업체 위생상태는?

광주시 북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17일 양산동 동신자활센터에서 광주시역 겨울방학 결식아동에게 전달되는 도시락의 위생상태 등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銀 2400돈이 사라졌다

### 광주 한 금은방 소포 배달 과정에서 ... 경찰 수사

광주의 한 금은방 주인이 서울 지역 도매상에 주문한 은(銀) 2400돈 가량이 소포 배달 과정에서 감쪽같이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시 북구 매곡동에서 금은방을 하는 정모(38)씨는 17일 오후 1시께 모 택배회사 기사로부터 택배를 전달받고 포장을 뜯어본 뒤 깜짝 놀랐다.

3일 전 서울시 종로구 A금은방 도매점에 전화로 은 11.25kg(3000돈·시가 1200만원 상당)을 주문했는데, 소포 상자에는 은 2.15kg(575돈·시가 230만원)만 들어있었던 것이다. 소포 상자 겉면에는 정씨의 이름과 주소 등이 제

대로 적혀 있었다.

놀란 정씨는 A도매점에 전화를 걸어 “주문량이 11.25kg인데, 왜 2.15kg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따져 물었으나 A도매점 측은 “주문량을 제대로 보셨다”고 답했다. 정씨는 “A도매점 주인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소포 겉면을 둘러싼 유리테이프 색깔이 주인의 말과 다르다”며 이날 북부경찰서에 도난 신고를 했다.

경찰은 A도매점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 화면분석 작업을 벌이는 한편, 모 택배회사 직원과 정씨 등을 불러 사라진 은 행방을 찾고 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 양성철 前 광주경찰청장

## ‘함바 비리’ 곧 소환조사

### 김병철 전 울산청장은 조사 후 귀가

‘함바 비리’ 사건에 연루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김병철 전 울산경찰청장이 약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17일 귀가했다.

이날 새벽 1시께 서울동부지검 청사를 나선 김 전 청장은 기자들에게 “성실하게 진술했다”고 짧게 말한 뒤 곧바로 승용차에 올라탔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김 전 청장을 상대로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에게서 함바 수수·운영 편의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는지 등을 추궁했다.

그러나 김 전 청장은 “다른 경찰관

의 소개로 유씨를 알게 돼 식사를 두세 차례 하는 등 만만 사実は 있지만, 청탁이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 이어 양성철 전 광주청장, 배건기 전 청와대 검찰팀장 등 수사 선상에 오른 나머지 경찰 고위직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 전 청장과 양 전 청장이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4일 이들을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로 전보 발령했다.

/연합뉴스

### 호프집에 괴한 침입 5만원 빼앗아 도주

16일 오후 8시20분께 광주시 동구 대인동 K호프집에서 40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괴한이 침입해 주인 김모(여·45)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계산대에 있던 현금 5만8000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 괴한은 호프집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시킨 뒤 주방의 흉기로 김씨를 위협한 뒤 김씨의 티셔츠로 손을 묶었으며, 30분 가량 머물며 다른 손님들 기다리다가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남성이 “10만원이 필요하다”며 다른 손님들 기다리다가 손님이 오지 않자 달아났다는 김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전라도 말투에 베이저 차점, 검정 바지를 입은 키 175cm 가량의 용의자를 찾고 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 성매매 후 싸운 남녀 제발로 경찰에

성매매 후 싸운 남녀 제발로 경찰에

○“돈을 대가로 성관계를 맺은 남녀가 말싸움 끝에 제발로 경찰서를 찾아가 ‘성매매’ 혐의로 나란히 입건.

○18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이모(42)씨와 박모(여·35)씨는 지난 17일 새벽 5시께 화순의 한 모텔 객실에서 돈을 주고 받으며 성관계를 맺은 뒤 나란히 인근 지구대를 찾아왔다는 것.

○이들은 이날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뒤 이씨가 박씨에게 현금 1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했다가 박씨가 ‘사후괴임약’을 사먹을 수 있도록 5만원을 더 달라고 말한 것에 시비 끝에 함께 경찰서를 찾아 둘 모두 성매매 혐의로 입건됐는데, 경찰에서 이씨는 “박씨가 추가로 돈을 요구해서 ‘꽃뱀’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 14만 합격자가 말한다 ★★★

## 2012 학년도 대학편입은 김영과 함께

편입할 사람 김영에 다 모여라! 대학편입 1학년부터 시작하자! 편입은 인생을 바꾸는 것이다!

### 김영편입학원

www.kimyoungh.co.kr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

**강을**  
**매일**